

1561년, 사이토 다쓰오키는 고작 13세의 나이로 사이토 가문을 계승했다. 1564년, 다케나카 한베에(1544~1579)는 사이토 가문의 무사에게 모욕을 당하고 자신을 모욕한 무사를 처벌해 줄 것을 다쓰오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다쓰오키가 이를 거부하자, 다케나카 한베에는 다쓰오키의 목숨을 노린다는 거짓 계획을 세우고 불과 16명의 무사들로 성을 공격해 보복했다. 하지만 다쓰오키는 큰 군세의 병력에게 공격당했다고 착각하고 성과 가신들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리하여 다케나카 한베에는 어렵지 않게 기후성을 손에 넣게 되었다. 성은 나중에 다시 다쓰오키에게 돌려졌지만, 성을 포기하고 도망쳐 버린 다쓰오키의 비겁함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주변의 눈에 비춰졌다.

1567년에 오다 노부나가(1534~1582)가 공격했을 때, 다쓰오키 휘하의 많은 병사들은 이때의 주군의 행실을 기억하고 오다군에게 투항하거나 도망쳤다. 노부나가는 사이토 가문의 견고한 성을 비교적 쉽게 수중에 넣고 자신의 거처를 이곳으로 옮긴 후, 성과 성하마을의 이름을 '기후'로 바꿨다. 다쓰오키는 성에서 도망쳤다가 1573년에 도네자카 전투(이치조다니성 전투)에서 전사했다.